

# 올해 목은 쌀 9만9000t 사료로 쓴다

### 농식품부, 2012년산 ... 1kg당 200원 공급

### 옥수수 일부 대체 ... 정서적 거부감 논란도

해마다 쌓이고 있는 쌀을 정부가 처음으로 사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북 쌀지원이 중단된데다 쌀 소비도 크게 줄어 해마다 목은쌀이 쌓이고 있어 나온 대책이다. 정부가 국내산 쌀을 사료로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10일 “2016년 쌀 특별재고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오래된 목은 쌀 9만 9000t(현미 기준)을 사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은 가공용 및 복식용 쌀 할인 판매, 사료용 쌀 공급 등을 통해 올해 56만t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사료관련 단체, 농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해 공급가격, 물량 배정, 사후관리방안 등 사료용 쌀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료용 쌀 공급

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2012년 생산된 쌀이며 공급대상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사료 제조업체이며 1kg당 200원에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쌀은 2월말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불하될 예정이며 이르면 2월 안에 축산 현장에 쌀 포함 사료가 공급될 전망이다. 또 일반 사료업체는 2월말까지 시제품을 내놓을 계획이고, 농협사료는 3~4월 중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쌀은 배합 사료 함유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옥수수를 일부 대체하게 된다. 또 배합사료의 경우 곡류를 분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제조 공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쌀은 ‘생명 농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옥수수를 대체했을 때의 영양 변화



정부가 처음으로 재고 쌀을 가축 사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담양의 한 논에서 벼 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등은 여전히 논란을 낳고 있는 요소다.

쌀을 사료로 쓰는데 따른 농민들의 반감과 사료의 맛이 달라졌을 때 가축이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와 농가에서 쌀 함유 사료를 꺼릴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통주 브랜드’ 키운다

### 국세청, 주류산업 규제 완화

### 자율경쟁 체제로 경쟁력 강화

### 업계 “세율 50% 감면” 요구

정부가 전통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전체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전통 브랜드’ 같은 새로운 국산 술 제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정부의 ‘2016년 국제행정 운영 방안’을 보면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진입규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우선 고려하는 것은 전통주 제조산업을 키워주는 방안이다.

현행 주세법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만드는 등 전통주로 분류되는 술에 적용하는 세율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전통주는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일반 주류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등 판로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막걸리(탁주)·약주·청주를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포함시켜 ‘하우스 막걸리’ 제조의 길을 열어 준 데 이어 다양한 전통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농·식품 규제개혁

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내용 가운데 ‘전통 브랜드’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랜드는 와인과 같은 과실주를 증류해 만들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다.

브랜드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72%로,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 청주(30%)에 비해 높다.

이 때문에 전통주 제조방식에 적용되는 세율 50% 감면을 브랜드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해당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브랜드 시설 기준의 경우 와인 숙성을 위한 오크통(참나무로 만든 양조용 나무통) 용량 기준이 25kℓ(25t) 이상으로 규정돼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월액숙성용 나무통 기준은 2013년 85kℓ에서 25kℓ로 낮춘 것이지만 시설을 갖추려 해도 2억원 안팎의 투자가 필요해 중소기업자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기준용량을 10kℓ 정도로 더 낮추는 방안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주류산업 규제완화가 연중 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공청회 등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청년 300명 선발

### 영농창업자금 지원

### 농식품부, 월80만원 최대 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자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농 역량과 의지는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300명을 선발해 창업안정자금 월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전 준비기간에 영농창업 인턴십과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거와 농업기반을 확보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4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지원 기간에는 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 등의 무교육을 받는다.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미만인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나 전화(1899-909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이 지난 5일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에게 떡을 나눠주며 ‘농지연금’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100세시대, 농지연금으로 노후 걱정 덜세요

### 농어촌공사, 송정역 등서 귀성객 대상 ‘농지은행’ 홍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난 5일 용산역과 광주송정역에서 동시에 귀성(경)객에게 떡을 선물하며 ‘농지연금’ 알리는 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무 사장은 “지난해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준 농업인 등 은국민과 함께 설명질의 기회를 함께하겠

다”면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농지은행사업이 농촌에 뿌리를 둔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은 농지연금을 비롯해 농지규모화, 농지임대수탁,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 등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지난해에

이자들 인화, 면적제한 폐지 등 많은 개선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익증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규모화사업에 177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2600억원, 농지매입비축사업에 1386억원, 농지연금사업에 498억원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7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일 ‘수산물 분쟁’ 법리 공방 돌입

### WTO 패널구성 완료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이고 있는 ‘수산물 분쟁’이 본격적으로 법리 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과 관련해 패널 구성을 완료했다.

패널 구성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패널이 구성되면 이후 패널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9일 WTO가 패널 위원 3명을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된다.

우루과이 출신으로 지구환경기금

(GEF) 이사회의장을 맡은 윌리엄 엘러스가 패널 의장으로 뽑혔다. 나머지 두 명은 식품안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 오염수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패널이 설치됐다. 이후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협의가 진행됐으나 실패했고 WTO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 직권으로 패널이 구성됐다.

패널 설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을 지연되는 추세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불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